

## 제4장 군포의 인물

### 1. 조선시대의 인물

#### 1) 곽 황(郭 隍 : 생몰년도 미상)

곽황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本貫)이 현풍(玄風)이며 부사직 득상(得常)의 아들이고 증병조 판서 한방(翰邦)의 조부가 된다. 1556년(명종 11) 별시 을과에 급제하였고 장사랑(將仕郎)을 지내던 중 26세에 요절(夭折)하였고 후에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자는 경정(景靜)이다.

군포시 부곡동 산 115번지에 있는 곽황의 묘갈(墓碣)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비로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臺石)에는 복연(復緣)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에는 「곽황지묘(郭隍之墓)」라 해서(楷書)로 썼으며 자경(子徑)은 5.7cm이고 전면의 자경은 2.8cm의 해서이며 찬·서지(撰·書者)의 기록이 없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에는 증숙부인 고령박씨(高靈朴氏)와 합장(合葬)하였고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혼유석(魂遊石)· 족석(足石)· 계제석(階砌石)· 문인석(文人石)이 있다.

이 묘소는 1970년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서 친장(遷葬)한 것이다.

#### 2) 김동현(金東獻 : 1791~1869)

김동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敬)이고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증조부 치후(致堯)는 관찰사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조부 종장(鍾章)은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졌으며, 아버지 명연(命淵)은 동녕부도정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증추부판사(中樞府判事)를 지낸 남홍억(南洪億)의 딸이다.

1830년(순조30)에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선공감(繕工監)의 감역(監役)에 제수되었으



리항 요감

나 마침 부친상을 당하였으므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1832년에 세자익위사부수(世子翊衛司副率)이 되었으며 이어서 오위사과(五衛司果), 사복시주부,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를 거쳐 외적으로 나가 임실현감·영천군수·광주부판관·담양부사·안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850년에 철종이 즉위하자 품계는 봉정대부로 승진하고 공조참의·호조참의·승정원우부승지·오위장(五衛將)·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860년(철종 11)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니 이후에도 도총부부총관·공조참관·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등을 역임하고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에 차임되었다. 1862년에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가 되었고 1886년(고종 11)에 병조참관 등을 지내고 공조판서와 지돈녕부·의금부판사까지 승진하였다. 사후에 좌찬성과 우의정에 추증되고 효정(孝貞)의 시호가 내려졌다.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동에 있었다.

### 3) 김만기(金萬基 : 1633 ~ 1687)

김만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속종의 장인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이며 아버지는 충정공(忠正公) 익겸(益兼)이고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 해평윤씨로 참판 지의 딸이다. 형조참관을 지낸 장생(長生)의 증손이고 이조참관을 지낸 반(盤)의 손자이며 생인 익겸(益兼)의 아들이다.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金萬重)이 그의 아우이다. 인경왕후의 아버지인 숙부 익희(益熙)에게서 수학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52년(효종 4) 생진양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 3인으로 급제하여 장예원, 승문원 주서, 설서를 역임하고 예조, 병조좌랑과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시간원 정언, 홍문관 부수찬, 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657년에 교리로서 글을 올려 『오례의(五禮儀)』의 복상제(服喪制) 등 잘못된 것을 개정하기를 청하였고 1659년 5월에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기년설(莛年說)을 주장하여 3년설을 주장하던 남인 윤희도(尹普道)를 공격하였다.

1660년(현종 4) 수찬이 되고 이듬해 응교, 사복시정, 성균관사성, 의정부 사인, 동부승지를 거쳐 1666년(현종 8)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편모를 떠나 멀리 갈 수 없다고 사양하니 대사간이 되고 곧 좌승지로 옮겼다. 이듬해 예조참의에 승진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그 후 광주부윤에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671년(현종 13) 딸이 세자빈이 되었고 이후 예조참관에 승진, 승문원 제조, 도총부 부총관, 판상감 제조를 겸했다가 병조참관으로 옮겼다. 이듬해 대사성이 되고 곧 부제학으로 전보되었다가 양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사에 동지의금부사를 겸임했다.

1673년 영릉(寧陵)을 옮길 때 산릉도감(山陵都監)의 당상관이 되었으며 1674년 7월에 병조판서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하여 상소를 올려 3년상을 주장하였다. 그 해 속종이 즉위하자 국구(國

男)로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총융사(摠戎使)를 겸함으로써 병권을 장악하였고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이 일어났을 때 훈관대장으로서 끝까지 급하지 않고 남인과 맞섰으며 강만철(姜萬鐵) 등이 허적의 서자 견(堅)과 종실인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자 이를 다스려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경서, 사기 외에도 제가서에도 달통하였으니 저서로 시문(詩文) 16권과 『서석집(瑞石集)』이 있다. 『서석집』은 1701년(숙종 27)에 간행된 활자본이며, 18권 9책으로 1701년(숙종 27)에 손자 춘택(春澤)이 수집·간행하였다. 내용은 시(詩)·서(序)·기(記)·발(跋)·제문(祭文)·잡문(雜文)·잡(箴)·찬(箋)·비답(批答)·교서(敎書)·상량문(上樑文)·애복문(哀服文)·고제문(告祭文)·치제문(致祭文)·책문(策文)·서(書)·계(啓)·소(疏)·시경(諛詩)·지갈(誌謫)·표(表)·부록 등이 실려 있다. 책끝에 아우 만중(萬重)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당시 서인과 남인 사이의 격심한 당쟁과 정권투쟁에 관한 내용이 많아 당쟁사를 아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며, 1719년(숙종 46)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산1-12번지에 있다. 대야미 천천역 우측 길로 갈치 마을을 지나 우측에 재실이 있는데 이 재실 뒤에 있다. 1992년 경기도 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묘역 중앙에는 대형묘가 8개의 호석에 둘러 쌓여 있고 그 앞 좌측에는 묘표가, 우측에는 숙종 어필의 묘표가 있으며 그 앞 좌측에는 8각의 방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위치해 있다. 1688년(숙종 14)에 세워진 묘표의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글씨를 쓴 것이고 숙종 어필의 묘표는 1699년(숙종 25)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글씨를 쓴 것으로 4각의 기단위에 비신은 그 위에다 첩석을 얹었다.

어필비는 1699년(숙종 25)에 세워졌으며 마멸 상태는 양호하고 대석에는 복연·당초문(唐草紋)·동자주(童子柱)가 있고 비의 전면 중앙에 ‘어필(御筆)’이라고 숙종이 전서로 썼는데 글자의 지름은 12.0cm이고 행서의 글자 지름은 11.0cm이며 후면은 아들 김진규(金鎭龜)가 짓고 예서(隸書)로 썼으며 글자 지름은 2.3cm이다. 한편 신도비는 1703년(숙종 29)에 세워졌고 개석은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제액(題額)에는 ‘광성부원군김공신도비(光城府院君金公神道碑)’라고 아들 김진규(金鎭圭)가 전서로 썼으며 자경(字徑)은 14.0cm이고 음기(陰記)는 해서로 자경은 2.2cm이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이곳 묘역에는 만기 이외에 그의 아들 진구(鎭龜)와 손자 춘택(春澤)의 묘도 있다.



김만기 모역

#### 4) 김명연(金命淵 : 1753~1830)

김명연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명이고 본관은 청풍이다. 조부는 관찰사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된 치후(致厚)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진 증정(鍾正)이다. 처는 중추부판사(中樞副判事)를 지낸 남홍익(南洪楫)의 딸이다.

1771년(정조 1)에 형인 희연과 함께 사마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동녕부도정에 이르렀다. 죽은 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효도와 절의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묘는 군포시 금정동 느티솔에 있었다.

#### 5) 김진구(金鎭龜 : 1651~1704)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외(晩求窩)로 영등령부사(領寧寧府使) 김만기(金萬基)의 아들이며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다.

1673년(현종 15) 사마양시에 합격하였고 1680년(숙종 6)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사관(史官)이 되어 『현종실록(顯宗實錄)』 수찬에 참여했다. 이어 정언(正言)·헌납(獻納)·교리(校理)·응교(應教)·검의(檢義) 등을 역임하였다. 좌승지(左承旨)·수원 부원(水原府尹)이 되었으며 1684년(숙종 10)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이 실각하자, 이에 앞서 김석주(金錫胄)와 함께 기혹한 수법으로 남인을 숙청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호조참판에 기용된 뒤 도승지(都承旨)·전라 관찰사를 거쳐 1696년에는 강화유수(江華留守)·세자가례부사(世子嘉禮副使) 등을 역임하였다. 1698년(숙종 24)에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어 도성수축(都城修築)을 주장하였다. 형조·공조·호조의 판서분 역임한 뒤 1700년에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우참찬(右參贊)·좌참찬(左參贊)을 거쳐 1702년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이르렀다. 광은군(光恩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비동에 있으며 신도비명은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짓고 아우 죽천(竹泉) 진규(鎭圭)가 묘표를 지었다.

#### 6) 김춘택(金春澤 : 1670~1717)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광산, 자는 백우(伯雨), 호는 북헌(北軒)이다. 아버지는 호조판서인 진규(鎭龜)이고 어머니는 정경부인 한산이씨로 지평 광직(光稷)의 딸이며 할아버지는 숙종의 장인인 만기(萬基)이다.

증조부 윤씨에게서 학업을 익히고 증조부 만중(萬重)으로부터 문장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특이하여 김수항(金壽恒)의 탄복을 받기도 하였다.

노론의 중심가문에 속하였으므로 항상 정쟁의 와중에 있었으며 특히 1689년(숙종 16) 기사환국으로 서인(西人)이 제거되고 남인(南人)이 집권하자 그 집안이 크게 화를 입어 그도 여러 번 유배 또는 투옥되었다.

1694년 재물로 궁중에 내통하여 폐비 민씨를 복위하게 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고 심문받았으나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면서 풀려났다. 그 뒤 서인이 다시 노론(老論) 소론(少論)으로 갈라지자 노론에 속하여 환국의 공로자로 칭송받았으나 남구만(南九萬) 등의 소론으로부터는 음모를 이용한 파행적 정치활동을 행하였다고 공격받았다. 1701년 소론의 탄핵을 받아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회빈 장씨의 소생인 세자를 모해하였다는 혐의를 입어 서울로 잡혀가 심문을 받고 1706년 제주로 옮겨졌다.

1886년(고종 24) 이조판서, 성균관 재주, 광령군(光寧君)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문공(忠文公)이다. 시계가 뛰어나며 문장이 유창하였고 증조부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九雲夢)』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를 한문(漢文)으로 번역했다. 지서로 『복헌집』 20권 7책과 『만필漫筆』 1책이 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그가 지은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은 작자가 제주도로 귀양가 있을 때 지은 가사인데 그 시대에 한문 숙어가 거의 없는 순한글체로 언어 구사의 평이상을 살린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글씨로는 『호판김진귀표(戶判金鎭龜表)』가 있다.

묘(墓)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다.

#### 7) 송 겸(宋謙 : 생몰연대 미상)

송겸(宋謙)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운(汝溫), 호는 추애(秋厓), 본관은 여산이다. 조부는 덕원부사(德源府使)와 내자시의 정(正)을 지낸 숙가(叔珪)이고 아버지는 김포현령을 역임한 세정(洗精)이다. 1520년(중종 15)에 생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관찰사, 한성관윤,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묘는 군포시 급정동 여산송씨 정가공파 선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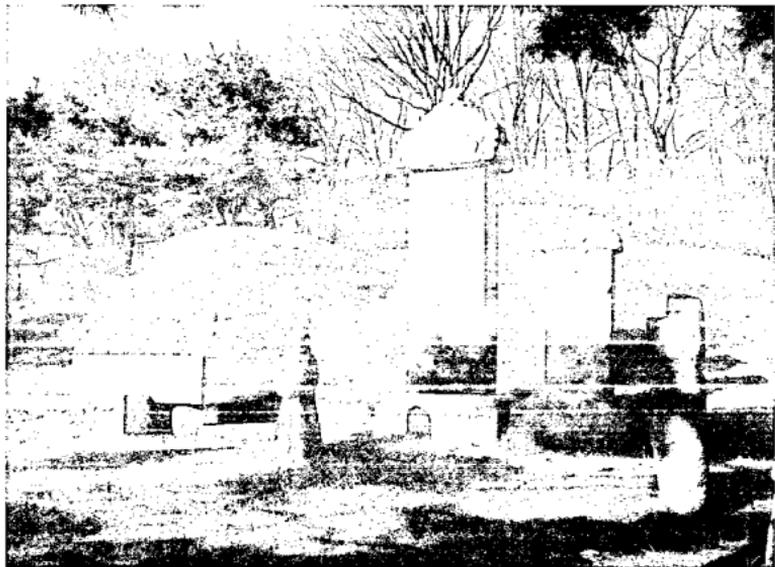
#### 8) 송복산(宋福山 : 1390~1467)

조선 초기 문신으로 자는 향부(享夫),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여산(嶺山)이다. 고조 분(玟)과 증조 서(瑞)는 모두 고려 왕조에서 시중을 역임하였고 조부 윤번(允蕃)은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으며 아버지 전(瑱)은 나주목판사(羅州牧判事)를 지냈다. 어머니는 감찰규정 김의진(金義珍)의 딸이다.

그는 처음 윤사(諱仕)로서 사정(司正)에 임명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감찬과 사농소윤(司農少尹)이 되었다. 그 후 네 현(縣)의 수령을 지내고 해주 목사에 전임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후에 승진을 거듭하여 품계는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고 형조참판·호조참판 등을 거쳐 한성부판사에 올랐다. 1469년 4월 78세의 나이로 죽자, 지금의 군포시 급정동 산11번지에 묘소를 조성하였다.

조선 1482년(성종 13)에 건립한 송복산의 묘갈은 군포시청 뒤 묵재에 위에 흥훈탑의 우측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맨 위에 묘소가 있고 그곳에 있다. 이 비는 비좌하엽(碑座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주(寶珠)의 형상이 있고 대석은 마말이 심해 문양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비문은 이승소(李承召)가 짓고 전면의 자경(子徑)은 2.5cm의 해서이다. 비의 전면엔 총탄흔적이 다섯 곳이나 있고 후면의 중앙 부분은 마말이 심해 판독이 쉽지 않다.

묘소에는 숙인 함천이씨(淑人 陝川李氏)와 쌍분(雙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계석(階砌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2기·망주석(望柱



송곡산 묘

石)이 있으며 1989년에 세운 비좌하업의 묘간이 있고 목읍재 좌측에는 1989년에 세운 귀부이수의 대리석 신도비가 있는데 강정희(姜正熙)가 짓고 글씨를 썼다.

#### 9) 송숙기(宋叔琪 : 1426~1489)

송숙기(宋叔琪)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거보(巨寶), 호는 월당(月塘),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판사 송복산(宋福山)의 첫째아들이다. 세보(世寶)와 부패(符牌) 등을 관장하던 상서원(尙瑞院)의 직장(直長)을 거쳐 1455년(세조 1)에 원종 공신에 올라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성종 2년(1471)에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훈(冊勳)되었고 한성서윤(漢城庶尹), 장단(長湍)과 풍덕군수(豊德郡守), 덕원부사(德源府使), 사섬시와 내자시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죽은 후 이조 참관에 추증되었으며,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급정동 산 11번지에 조성되었다.

조선 성종 20년(1489)에 건립된 송숙기의 묘갈(墓碣)은 군포시청 뒤 목읍재 위에 충혼탑의 우측 들계단으로 올라가면 중간 부분에 묘소와 함께 있다. 이 비는 비좌(碑座)하업(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주(寶珠)의 형상이 있고, 대석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에는 '사찰시정승군거묘(司階寺正宋君之墓)'라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子徑)은 6.0cm이고 전면의 자경은 1.7이며 우측면의 자경은 6.0cm의 해서로 안취(安塚)이 쓰고 비문도 지었다. 비의 마멸이 심해 일부 관독이 남아한 곳이 있으며 묘소에는 증정부인 용인씨(贈貞夫人 龍仁李氏)와 쌍분(雙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이 있으며 1989년에 세운 비좌하엽의 묘각이 있는데 강정희(姜正熙)가 글씨를 썼다.

#### 10) 송 천(宋 璣 : 생물연대 미상)

송원(宋璣)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처음의 이름은 직(績)이고 호는 과일(果菴),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판사 송복산(宋福山)의 둘째 아들이다. 단종 때 궁중에 쓰이는 생선·소금·연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재감(司宰監)의 주부(主簿)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단종이 퇴위하자 당시 과천현에 속해 있던 현재의 군포시 금정동에 은거하여 이맹전(李孟傳)과 함께 과천차사(果川處士)로 일컫어졌다. 이어 금오산에 들어가 숨어살며 김종직(金宗直)과 교유하였다. 죽은 후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 11) 안양군 이항(安陽君 李衍: 1480~1504)

안양군은 성종의 3남으로 태어나서 1504년(연산군 10)에 사사되었다. 그의 이름은 항(衍)이며 자는 성의(聖儀), 호는 만송(晩松), 시호는 공화(恭愍)이다.

어머니는 귀인 초계정씨이다. 초계정씨는 그를 비롯하여 봉안군(鳳安君)과 정혜옹주(靜惠翁主) 등 3남매를 두었는데 안양군은 이 중 장남이다. 배위는 면천군부인(沔川郡夫人) 능성구씨로 정국공신(靖國功臣) 판서 능천군 구수영(具壽永)의 딸인데 1480년(성종 11)에 태어나 1556년(명종 11)에 별세하였다.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 윤씨(尹氏)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嚴氏)의 참소(讒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봉안군 봉(寵)을 이에 연루시켰다.

1504년(연산군 10)에 제주에 안치되고 가계는 적몰(籍沒)되었다. 그리고 노비전토사채(奴婢田土私債)는 추쇄(推刷)되고 봉과 함께 사사되었다. 그러나 중종이 즉위하면서 생모인 정씨에게는 삼년제 불이 내려지고 안양군과 봉안군에게는 쌀·종이·정포(正布)·목면 등이 내려짐과 동시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지내하도록 하였다. 1520년(중종 15)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택지(擇地)하여 개장하도록



안양군 묘

교지가 내렸다.

한편 안양군이 사사 당했을 때 상주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장인인 구수영이 운장하여 구씨 선산인 경기도 양주군 진관면 군장리 묘좌에 면천군부인 능성 구씨와 쌍립하여 매장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고종의 능지로 예정되었으므로, 1901년(광무5) 시흥군 남면 광정리(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하의 건좌에 합장하였다.

안양군이 제주도 적소에서 향년 25세로 참화를 당하였을 때 서울에 있던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된 증남도정(從南都正) 억수(億壽)와 함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하 평정동에 숨어 살아 이곳을 고향과 선영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안양군 묘소만 현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월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 산74번지로 이장하였다.

안양군 묘역의 규모는 약 300여평으로 연지, 사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묘표가 각 1기씩 세워져 있고, 동자석, 석수,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조물이 각각 2기씩 있다.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후에 이 묘역에 신도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통정대부 거창 신증목이 지은 것은 1976년 이인형이 쓰고 김충현이 전액을 하여 건립하였다. 안양군 묘는 1990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 12) 안우삼(安友參 : 1441~1494)

안우삼은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자는 효백(孝伯)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세조때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역임한 안의(安誼)의 아들이다. 할아버지 안송선(安崇善)은 비슬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서 세종초(世宗初) 때의 유명한 재상(宰相)이다.

음보(蔭補)로 도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선공감(繕工監)의 정(正)과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지냈으며 여러 궁과 고관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관장하던 내선사(內膳寺)의 정을 역임하였다.

그 이후 남부녹사(南部錄事)가 되고 종부직장(宗簿直長)·형조정랑·한성서윤(漢城庶尹)을 역임하였다. 내선시정(內膳時正)과 선공감정(繕工監正)은 다 장관이다. 그가 부임한 경기(京畿) 내의 사무가 많은 읍에는 정사(政事)가 선양되고 백성을 사랑하여 크게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일찍이 의영고랑(義盈庫舍)으로 있었을 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관물(官物)을 출납하다가 모두다 죄를 받아 파면되었지만 안우삼은 홀로 면하였다. 1494년(성종 25) 10월에 이천 임소(任所)에서 타계하였다.

안우삼과 관련된 유물로 묘표(墓表)가 있다. 안우삼 묘표는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도장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후회전 후 쓰레기 조각장을 지나면 순흥 안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언뚝을 지나 우측 산에 있다. 1496년(연산군 2)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관석(碑座冠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관석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데 관석에는 운문(雲紋)이 7개가 있고 후면도 동일하며 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대석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는데 마멸이 심해 형태만 남아 있다.

비문은 유순(柳海)이 짓고, 앞 면의 글자 크기는 6.5cm이며 뒷 면의 글자 크기는 2.3cm의 해서(楷書)이다. 비는 후면 일부의 마멸이 심해 관독이 난이한 곳이 있으며 묘소에는 숙인 청주한씨(淑人淸州韓氏)와 쌍분(雙墳)·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문인석(文人石) 등이 있으며, 1990년에 새운 비좌이수의 대리석 묘표가 있다.

### 13) 안우하(安友夏 : ?~1544)

안우하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촌(智村)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세조 때 성주목사(星州牧使)와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역임한 안의(安誼)의 아들이다. 1476년(성종 7)에 진사가 되고 영평군수(永平郡守)등을 역임한 후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조정의 실정을 탄탄하며 과천현 수리산에 은거하였다.

1523년(중종 18)에 노인직으로 첨지 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죽은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군포시 산본동에 조성되었다.

### 14) 안 의(安 誼 : 1423~1467)

조선전기의 문인으로 본관(本貫)이 순흥(順興)이며 자는 지(之)이다. 고려의 명현 안축(安軸)의 후손이다. 고(考)는 안송신(安崇善)인데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뽑혀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에 이르렀고 『고려사(高麗史)』 수찬(修撰)에 참여했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조(祖)는 안순(安純)인데 우찬성(右贊成)으로 시호는 정숙(靖肅)이다. 증조는 안경공(安景公)으로 개국공신이며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에 봉해졌다.

1477년(세종 2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후 음보(蔭補)로 여러 관직을 거쳐 의영고적장(義盈庫直腸)·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한 후 증훈부경력(忠勳府經歷)·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연안부사(延安府使)를 거쳐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내던 중 지병으로 순직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안의를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을 독실히 하여 1477년(세종 29)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사헌감찰(司憲監察)로 승진되고 증훈부경력(忠勳府經歷)·사헌지평(司憲持平)을 거쳐 연안부사(延安府使)와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나아갔다. 1468년(세조 14) 병으로 집에서 타계하였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빼어나고 효심과 우애가 돈독하여 어버이 섬김을 정성껏 하고 형제간에 대하기를 화목하게 하였으며, 동료에게는 반드시 신의를 가지고 대하니,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였다고 한다. 불행히 수름 다 못하고 명성에 맞는 높은 벼슬에 이르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 애석하게 여겼다.

안의에 관련된 유물로 묘갈(墓碣)이 있다. 안의 묘갈은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도장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후회천 후 쓰레기 소각장을 지나면 순흥안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언뚝을 지나면 좌측 산에 있다. 1503년(연산군 9)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두(龍頭)화 되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

올려다보며 농주(弄珠)하고 그 아래에는 운문이 있으며 후면도 동일하고 좌우측면에는 용포리와 운문이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과 안상문의 문양이 있다.

비문은 성현(聖賢)이 짓고 앞 면의 글자 크기는 3.5cm이며 뒷 면의 글자 크기는 2.0cm로 해서(楷書)로 새겼다. 비는 전·후면 모두 마멸이 심해 판독이 난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장(合葬)되었으며, 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소지대(燒紙臺)·양석(羊石) 등이 있으며 1990년에 16대손 안동준(安東濬)이 글씨를 써서 세운 비좌이수의 대리석비가 있다.

#### 15) 양 속(梁 淑 : 1471~1528)

양속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本貫)이 남원(南原)이며 자(字)는 자경(子澄)이고 호는 송은(松隱)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 권(權)의 아들이다.

연산군 8년(1502) 천거(薦擧)로 빙고별제(氷庫別提)를 거쳐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장례원(掌隸院)사평(司評)·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의영고령(義盈庫令)·군자감정(軍資監正)·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예빈시첨정(禮賓寺僉正)·사설시정(司贖寺正)·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였으며 외직(外職)으로는 함경도사(咸鏡都事)·공주판관(公州判官)·양근군수(陽根郡守)·이천부사(利川府使)·정주목사(定州牧使)를 지냈으며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20여년 간의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근면하게 공무를 처리한다는 평을 받았다.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양속 묘갈(墓碣)은 군포에서 안산 방면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곡 복합화물 터미널로 좌회전후 복합화물 터미널을 못가 좌측의 지하도를 통과하여 좌측 산 중간에 모친 진천송씨(鎭川宋氏)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비는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臺石)에는 복연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은 「증판판양공묘갈(贈參判梁公墓碣)」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은 7.5cm이며 전면의 자경은 5.0cm이고 후면의 자경은 1.8cm의 해서(楷書)로 송인(宋寅)이 쓰고 추기(追記)도 하였으며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지었다. 비의 후면 상부는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고 하부는 일부 판독이 가능하나 우측 부분이 파손되어 시멘트로 보강시켰으며 묘소에는 정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장·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망주석(望柱石)·문인석(文人石)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에서 옮겨온 것이다.

#### 16) 양윤의(梁允義 : 1489~1564)

양윤의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남원(南原)이며 자는 중유(仲由)로 정주목사(定州牧使) 숙(淑)의 아들이다.

1552년(중종 17) 과거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고 이후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상의원원정(尙衣院僉正)·내설시정(內膳寺僉正)·훈원원도정(訓鍊院都正)·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을 지냈으며 의직으로는 벽동군수(碧潼郡守)와 정평(定平)·김해(金海)·수원(水原)·안변(安邊)·인천(仁川)의 부사(府使)를 역임한 후 진라 수사(水使)·경상도·평안도의 절도사(節度使)를 지냈다.

1622년(광해군 12)에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세운 양윤의 묘갈(墓碣)은 군포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가는 47번 국도서 부곡 복합화물 터미널로 좌회전 후 복합화물터미널을 벗어 좌측의 지하도를 통과하여 가면 좌측 산 중간에 조부 양찬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비는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복연(復緣)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에는 「동지돈령양공묘갈명(同知敦寧梁公墓碣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글자의 지름은 7.5cm이며 전면의 자경은 5.0cm이고 후면의 자경은 1.8cm의 해서로 오백량(吳百齡)이 쓰고 비문은 오억량(吳億齡)이 지었다.

비의 마멸이 전체적으로 심하고, 후면 하단부를 시멘트로 보강시켜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정부인 죽산박씨(竹山朴氏)의 묘소는 좌측 산에 있고 이 묘소에는 정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합장(合葬)·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문인석(文人石)·망주석(望柱石)이 있다.

#### 17) 양 찬(梁 璜 : 1443~1496)

양찬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남원(南原)이며 자(字)는 여옥(汝玉)이고 호는 난포(蘭浦)로 남원군(南原君) 성지(誠之)의 셋째 아들이다.

1465년(세조 10)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1468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1478년(성종 9)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역임한 후 승정원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1496년(연산군 2) 첨지사(僉知事)가 되었다.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그의 묘표(墓表)는 1968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서 옮겨온 것으로 군포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곡 복합화물 터미널로 좌회전한 후 복합화물

터미널을 못가 좌측의 지하도를 통과하여 가면 좌측 산 중간에 있다. 1497년(연산군 3)에 만든 이 비는 비좌하엽(碑座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주(寶珠)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대석(臺石)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汶)이 있는데 마멸이 심하다. 비의 전면(前面) 자경(字徑)은 3.4cm이고 후면의 자경은 3.0cm의 해서로 썼으며 찬·서자(撰·書者)의 기록이 없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숙부인 진천송씨(鎭川宋氏)의 묘소는 우측 산에 있고 이 묘소에는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계석(階階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양석(羊石)·방주석(望柱石)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천장(遷葬) 후 이해 가운데 현덕사(顯德祠)와 정강재(正綱齋)를 지었으며 이때 세운 남원양씨세천기념비(南原梁氏世阡記念碑)는 구부이수의 대리석비로 후손 양태석(梁兌錫)이 비문을 짓고 이보림(李普林)이 글씨를 썼다.

#### 18) 이기조(李基詒 : 1595~1653)

이기조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선(子善), 호는 호암(浩菴),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판서를 지낸 현영(顯英)의 아들이며 박동열(朴東說)의 문인이다.

광해군 7년(1615) 진사로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박사로 정홍명(鄭弘溟)을 천거했다가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大北派)의 탄핵에 의하여 파직되어 그의 아버지 현영과 함께 수원 쌍부촌(雙步村)에 은거하였다.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형조좌랑이 되었다가 뒤이어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 청요직(淸要職)을 여러차례 역임한 뒤 병조참의·공주목사(公州牧使)·호조참의를 거쳐 1635년(인조 13)에는 경상도 관찰사를 나가 많은 치적을 쌓아 승덕비가 세워졌다.

1636년 안변부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찬회사(平安道贊贊制使)로서 적과 싸우기를 원하였으나 감사(監司)의 반대로 좌절되자 죽도(竹島)에 영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피난시켜 적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난이 끝난 후 도승지에 이어 대사간, 이조참의와 참관을 역임하였고 1645년 부제학으로 동지사(冬至使) 겸 정조 성절사(正朝聖節使)로서 청나라에 가서 지나친 세공미 요구를 감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삼척부사로 좌천되자 사직하였다.

1649년 5월에 효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에 올랐으나 대동법의 시행과 화폐사용 등의 문제로 김유(金瑒)과 뜻을 달리하여 대립하였다. 1650년에 효종이 성지(城池)를 수축하기 위하여 '왜정가려(倭



이기조 묘

情可慮)’ 라는 이유로 청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남쪽에 성을 쌓고 군사 훈련을 주장하였다. 또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장릉지문(長陵誌文)’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으므로 청나라가 이를 강화조약의 위반이라 하여 조선 정부를 추궁하였을 때 그 책임으로 이경석(李景奭)·조경(趙經) 등이 청나라 사신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기조는 연대 책임을 주장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사하게 하였으므로 효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어 진주사(陳奏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들어가 이 일을 잘 수습하고 돌아와 우참찬이 되고 이어서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증묘 수리에 태만하였다는 김육 등의 탄핵을 받아 함경감사로 좌천되었으나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1653년(효종 4)에 공조판서에 임명되어 돌아오던 중 김화에서 병으로 죽었다.

사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1698년(숙종 24) 충간(忠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705년(숙종 31)에 세운 신도비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1152-11에 있는데 원래 이 무덤과 비는 경기도 정단에 있었으나 1672년에 현재의 곳에 이장하여 부인 신씨와 합장하였다. 이 유적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숙종 31년(1705)에 세워진 신도비는 비좌개석의 형태를 갖추고 있

며 개석에는 조식도 없이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제액(題額)에는 『증영의정행예조판서시충간이공신비명(贈領議政行禮曹判書諡忠簡李公神碑銘)』이라고 외손(外孫) 신원(申垸)이 전서로 썼으며 자경(子徑)은 9.0cm이고 음기(陰記)는 손자 이명필(李明弼)이 해서로 썼는데 자경은 2.0cm이며 비문은 박세채(李世采)가 지었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에는 계실 고령신씨(高靈申氏)와 합장·상석·향로석·혼유석·족석·계제석·문인석·동자석·망주석이 있다.

#### 19) 이응희(李應禧 : 1579~1651)

자는 자수(子綏), 호는 옥담(玉潭)이다. 성종의 3남인 안양군(安陽君)의 현손으로서 여흥령 현(縣)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이다.

14세 때 부친상을 당하고 2년 후인 1594년(선조 27)에는 조모상까지 당했다. 당시 과천 남면 산내곡에 장래지냈다. 이후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업을 이어가며 학문과 예절에 정열을 다 쏟아 원근에서 그 덕망을 청송하였다.

광해군 때에 이이철(李爾瞻)이 인목대비를 폐위하고자 꾀할 때 크게 상심하여 백의항소(白衣抗疏)로 간곡히 만류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과천 수리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학식이 고명함을 알고 중용하려 했으나 재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안양군이 연산군 때 원사(冤死)를 당하면서 유언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말라고 하여 그 유훈을 따른 것이라 한다.

배위는 경주 김씨로 승정원 도승지 통정대부 형조참의 위(偉)의 딸이다. 김씨는 7남 2녀를 두었는데 7형제가 모두 진사에 급제하여 주위에서는 두(斗)자 향달이라 칠두문장가(七斗文章家)라고 칭송하였다. 그가 58세 때인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해도(海島)로 피난하여 전전하다 2년 후인 1638년 9월에 어머니가 향년 85세로 별세하였고, 그도 14년 후인 1651년(효종 2) 음력 5월 9일에 향년 73세로 일생을 마쳤다. 2년 후 부인도 별세하여 산내곡, 지금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 195번지에 합장하였다. 지난 1993년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선영지역이 수용되자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로 이장하여 새로운 선영을 정하였다. 이장 때 분묘에서 출토된 지석이 묵서청자(墨書靑瓷) 8관으로 되어 공의 공적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며 새로운 선영에 다시 매봉(埋封)하였다.

그의 저술은 모두 1,000여 편이었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고, 『옥담유고(玉潭遺稿)』와 『옥담사집(玉潭私集)』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한편 이응희는 류순인(柳純仁), 심부(沈

溥), 류우인(柳友仁), 안홍재(安弘濟), 송규(宋珪), 이원득(李元得), 이경일(李敬一), 한덕급(韓德及), 안중행(安重行) 등과 함께 시계(詩契)인 향로계(享老契)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현재의 군포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0) 정광필(鄭光弼 : 1462~1536)

정광필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는 사훈(士勛), 호는 수부(守夫)로 본관은 동래(東來)이다. 이조판서 정난종의 아들이다. 1492년(성종 23)에 진사에 오르고 같은 해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성균관 전적(典籍)을 역임하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으며 마침내 홍문관에 들어가서는 수찬(修撰)·교리(郊理)를 역임하였다. 또 상적무무극(詳定局務劇)으로 있다가 예조 정랑(正郎)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지계교(知製教)를 겸하였다.

의빈부경력(儀賓府經歷)·성균관 사예(司藝)로 옮겼다가 사헌부 집의(執義)를 거쳐 예빈사(禮賓寺) 정(正)이 되었고 다시 홍문관으로 들어가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 성균관 학정(學正)으로 있을 때 이극균(李克均)의 추천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었는데 임금이 사냥을 너무 자주 행한다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 반정 후 부제학에 오르고 이후 이조참판, 예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1510년에 우참찬으로 전라도 도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 1512년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데 공헌하였다. 곧이어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고 1516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구하려다 영중추부사로 좌천되었고 1527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일찍이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中宗)이 즉위하였음을 알리자 연좌되어 유배된 당한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이에 정광필은 “이것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이다. 다만 아직 옛 임금의 사생(死生)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고기를 물리치고 먹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지조에 감복하였다. 1515년에 장경왕후가 죽고 중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자기의 소생을 끼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려하자 그는 홍문관 동료들을 이끌고 경전(經傳)을 인용하며 극간하여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1519년에 중종이 사정전(思政殿)에 들러 천재(天災)의 원인이 될만한 정치의 잘못을 물었을 때 한충(韓忠)이 그를 비무한 제상이라 탄핵하였다. 이에 신용개(申用溉)는 선비가 대신을 반대하여 배척하는 풍조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한충의 논죄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바른말하는 풍조를 꺾어 억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하여 제상의 넓은 도량을 보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어 회덕현(懷德縣)에 내려가 있었는데

데 불의에 조정에서 금오랑(金吾郎)이 파견되자 사사(賜死)되는 줄 알고 온 집안이 모두 놀래고 두려워 우는데도 정광필은 변색도 없이 장기를 두면서 치우지 않았다. 금오랑이 전하기를 감형(減刑)되어 김해(金海)로 귀양보낸다 하니 정광필은 “임금의 은혜가 저극합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고 김해로 귀양가는 길에 지은 다음과 같은 시(詩)가 「당직보(堂職譜)」에 전한다.

재방이 산간이 쌓였으나 마침내 용서받았네  
 평생 임금 은혜에 보답할 길 없구나.  
 열번 높은 고개를 넘는데 두줄기 눈물ियो  
 세 번 장강(長江)을 건너면서 풀로 혼이 끊어지네  
 아득히 높은 신엔 구름이 먹울 뿔고  
 망망한 들판에는 비가 힘아리를 쏘는 듯 하네  
 저물게 바닷가 동쪽 성밖에 다다르니 조가집이 쓸쓸한데  
 대나무로 문을 삼았구나

1533년(중종 28)에 영상에서 불려나 회덕에 머물러 있었는데 후임 영상 김안로가 장강왕후 국경때 정광필이 총호사(摠護使)를 맡아 농지를 불길한 땅에 잡었다고 부고하여 김해로 유배되었다. 이것은 김안로의 아들 김희(金誥)가 중종의 공주 효혜공주에게 장가들어 부마가 되었는데 이때 호숫목장을 받아서 받을 일고코자 하였는데 정광필이 이를 지지하였으므로 김안로의 원한을 샀기 때문이었다. 1537년에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곧 풀려나 영종추부사가 되었다. 여러 번 권세의 자리에 있었으나 문 앞에서는 잡된 빈객(賓客)이 없었다. 그는 퇴청(退廳)해서는 방에 앉아 서사(書史)를 읽고 재물을 불리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음악이나 여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낙(樂)을 탐하고 덕을 상실하는 것으로 집안의 훈계를 삼았다고 한다.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4번지는 동래 정씨의 옛 기재(基地)였다고 한다. 이곳은 문익공 정광필이 살던 터로 약 400여년간 자자손손(子子孫孫)이 대를 이어 지켜왔던 유서 깊은 곳이다. 어느 날 정광필의 꿈에 선인(仙人)이 나타나 집 앞 은행나무에 열두 개의 서각대(犀角帶)를 걸어 놓고 가더러는 것이다. 그 후 정광필의 손자 정유길(鄭惟吉), 증손 정장연(鄭昌衍), 현손 정태화(鄭太和) 등 열두 명의 상신(相臣)이 배출되어 동래 정씨의 화려한 명맥(名脈)을 이루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회덕(懷德)의 승현서원(崇賢書院), 용궁(龍宮)의 완담향사(浣潭鄕祠)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저서로는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가 있다.

관련유물로는 정광필신도비(鄭光潯神道碑)가 있다. 신도비는 대야미 전천역을 지나 둔대초등학교 앞에서 좌측 길로 올라가 갈치저수지 상류에서 우측으로 가면 성단재(省達齋)가 있는데 이 재산을

지나 올라가면 뉘 위에 보이는 비각 안에 있다. 1562년(명종 17)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두화된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하고 있는데 운문에 감싸여 있고 후면도 동일하며 좌우측면에는 운문과 용포리가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과 안상문·동자주가 있는데 장방형 판석 위에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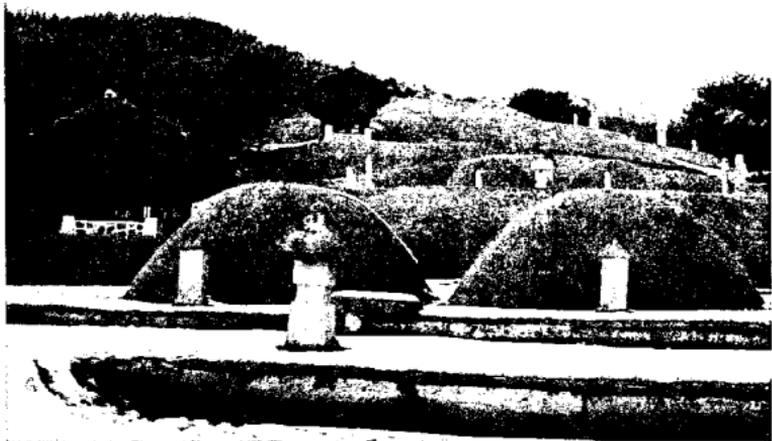
제액(題額)은 「문익공신도비명(文翼公神道碑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8.0cm이고 음기(陰記)는 이황(李滉)이 해서(楷書)로 썼는데 자경은 1.2cm이며 비문(碑文)은 소세양(蘇世讓)이 지었다. 비의 마멸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독이 가능하며 묘소에는 정경 부인 은진 송씨(恩津 宋氏)와 쌍년(雙墳)이며, 상석·향로석·혼유석·족석·계제석·장명등·문인석·망주석 그리고 1539년에 세워진 비좌이수의 대리석 묘표와 부인 은진 송씨의 묘표가 별도로 있다.

## 21) 정난중(鄭蘭宗 : 1433~1489)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글씨에 능한 명신(名臣)이었다.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국형(國馨)이고 호는 허백당(虛白堂)으로 진주목사 정사(鄭賜)의 아들이다. 원조(遠祖)는 정목(鄭穆)으로 고려 때 벼슬하여 관직이 좌복야(左僕射)에 이르렀다. 복야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 제(濟)·점(漸)·택(澤)·항(沆)으로 모두 등계하여 정택은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에 올랐고 정항은 시중(侍中)에 올라 마침내 일시에 성대한 가문이 되었다.

1456년(세조 2) 생원·진사시·식년(式年) 분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 정자를 거쳐 검열·대교·동래문봉례랑·이조과랑 등을 역임하였고 1460년 정자청(鄭自淸)과 함께 서얼 출신의 과거응시를 반대하였다. 1467년 황해도 관찰사로 이시애(李施愛)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호조참판에 전임되었고 1469년(예종 1) 동지춘추관사로 『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70년(성종 1) 동지중추부사로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1471년 순성파리공신에 올라 동래군(東萊君)에 봉해졌고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영안도(永安道) 관찰사·호조참판·영안북도병마절도사·한성부판윤·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성종 14년(1483) 주문부사(奏聞副使)로 재차 명나라에 다녀온 뒤 평안도 병마절도사·우참찬, 이조·공조·호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이시애의 난이 발발했을 때 황해도 관찰사로 계수되었다. 이것은 황해도의 경계가 관북(關北)과 접해 있어 적의 소굴과 가까우며 통제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정난중이 아니면 소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왕이 특명(特命)을 내린 것이다.



군포시 속달리 등리 정씨 묘역

그가 북방의 관문(關門)을 지킬 때 풍질(風疾)을 얻어 몹시 위독하여 한 달이 넘도록 군무(軍務)를 보지 못하였다. 막료(幕僚)들이 조정에 이를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만류하여 말하기를,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병세가 위급하다 하여 급히 조정에 알리면 왕께서 반드시 놀라 근심하실 것이며, 또 북방의 분권(分權)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핑계를 만들어 직무를 회피할 것이니 내가 감히 못하는 바이다. 재군(諸君)들이 나의 병세를 보고 있다가 반드시 어찌할 수 없게 된 후에 보고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병세가 쾌차되었는데 이때 북쪽의 오랑캐 집단인 이마거(尼麻居)무리가 공의 병세를 틈타 침입하려 하였다. 공은 염담하여 이를 알아내고 잔병(殘病)을 무릅쓰고 일어나 막료들과 계책을 세우며 말하기를, “병법(兵法)에 먼저 적의 마음을 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계책을 쓸 때이다”라고 하고 이에 성 밑에서 모여 살던 옛날 오랑캐의 우두머리 수십 인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절도사(節度使)에게 오진(五鎭)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전에 변방을 침입하여 노략질하던 이마거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들 또한 마땅히 종군(從軍)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날자를 약속하고 이들을 보냈다. 이마거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대군(大軍)

이 장차 이를 것이라고 여겨 도망하여 숨자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해 수확을 놓쳤고 마축들이 많이 폐사하였다. 마침내 여러 해 동안 감히 번방을 침략하지 못함에 막교들은 공의 기지에 감복하여 모두 이것으로 맘미암아 조정에 상계(上啓)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은 또 만류하여 말하기를, “직책상 당연한 것이거늘 어찌 번거롭게 하리는가?” 하였다.

그는 이른바 훈구파의 중진으로서 성리학에 밝았고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어 성임(成任)과 함께 세조·성종대의 최고의 서예가로 인컬어졌다. 그는 초서와 예서문 잘 썼는데 특히 조맹부체(趙孟頫體)에 뛰어났다. 세조 11년(1465)에 『원각경(圓覺經)』을 인쇄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자체(鑄字體)를 쓰도록 하였는데 이 활자는 을유재(乙酉字)로 불려진다. 반면 성현(成俔)은 『용재총화』에서 “정난종이 쓴 창덕궁 전문(殿門)들의 액(額)은 자체가 마르지 않다.”, “『원각경』의 자체가 고르지 않다.”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금석본에도 필적이 많이 남아 있다. 탑골공원의 「원각사비음(圓覺寺碑陰)」, 양주의 「신숙주묘표(申叔舟墓表)」·「윤자운(尹子雲) 신도비와 묘표」, 논산의 「김철산비(金鐵山碑)」가 있으며 금문(金文)은 양양의 「낙산사종명(洛山寺鐘銘)」, 고성(高城)의 「유점사종명(楡岾寺鐘銘)」, 양주의 「봉선사종명(奉先寺鐘銘)」, 덕수궁의 「흥천사종명(興天寺鐘銘)」 등이 있다. 진적(眞蹟)은 보기 드물지만 「관남정찰(觀瀾亭帖)」·「해동명적(海東名蹟)」·「대동서법(大東書法)」 등에 그의 글씨가 조각되어 있다. 1)

정난종과 관련된 유물로는 경기도기념물 제115호로 속달동에 위치한 신도비가 있다. 정난종신도비의 건립 연대는 1525년(중종 20)으로 194×80×26cm이다. 신도비는 대야미 전철역을 지나 둔대초등학교 앞에서 좌측길로 올라가 갈치저수지 상류에서 우측으로 가면 성달재(省達臺)가 있는데 이 재실을 지나 올라가면 첫 번째 보이는 비각 안에 있다.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들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두(龍頭)화 된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弄珠)하고 있는데 운문(雲紋)에 감싸여 있고 후면도 동일하며 좌우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북연(覆蓮)과 안상문이 2단으로 되어있다. 제액(題額)은 「익혜공신도비명(翼愷公神道碑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은 8.0cm이고 음기(陰記)는 강장(姜漿)이 해서(楷書)로 썼으며 자경은 1.8cm이며, 비문은 남근(南寢)이 지었다. 비의 머털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묘소에는 정부인 완산 이씨(完山 李氏)와 쌍봉(雙墳) 앞에 상석·향로석·혼유석·족석·계석·장명등·문인석 2기·동자석 등이 있다.

1) 참고문헌으로 『成宗實錄』, 『國朝人物考』, 『海東金石苑』권5, 『朝鮮金石總覽』下, 『楳城書畫徵』, 『韓國金石道文』(黃崙永, …志社, 1976), 『韓國古印刷文化史』(金斗鍾, 三星美術文化財團, 1980).

## 22) 정재륜(鄭載崙 : 1648~172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수원(秀遠), 호는 죽헌(竹軒)이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아들이며,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에게 입후되었다. 1656년(효종 7) 효종의 다섯째딸 숙정공주(淑靜公主)와 혼인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숙정공주가 일찍 죽고 1681년(숙종 7) 독자 이던 정효선(鄭孝先)도 요절하자 재취할 것을 상소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으나 대간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부마들은 재취할 수 없다는 법규가 정해졌다고 한다. 1670년(현종 11) 사은정사로, 1705년(숙종 31)에는 동지정사로, 1711년(숙종 37)에는 동지 겸 사은정사로 청나라에 세 차례나 다녀왔다. 평소 생활이 검소하여 국왕의 사위인줄 불랐다고도 한다. 저서로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한거만록(閑居漫錄)』 등이 있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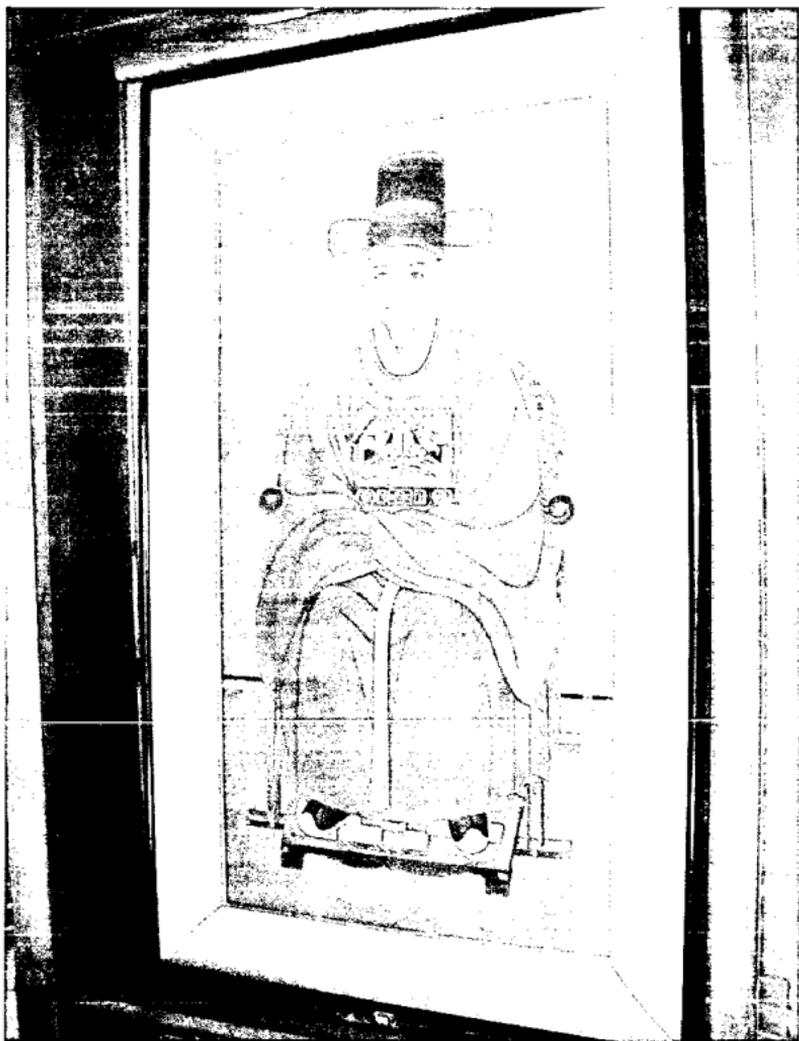
현재 군포의 속달동에 위치한 일명 '구봉타'에는 음력 10월 1일이면 이틀간 풍제가 치러지는 아름다운 마을 숲이 있다. 300여년 이상된 거목들이 우거진 이 숲은 정재륜과 그 부인이었던 숙정공주의 무덤 부근에 조성된 것이다. 이곳은 2002년 산림청 등에서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 23) 한치의(韓致義 : 1440~1473)

한치의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의지(誼之)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좌의정 한확(韓確)의 아들이고 성종의 생모인 인수왕비(仁粹王妃)의 동생이다. 세조 1년(1455) 우보(叅補)로 사정(司正) 겸 상서시록사(尙瑞司錄事)가 되었고 이듬해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세조 5년(1459)에 통례원봉례랑(通禮院奉禮郎)을 거쳐 세조 7년(1461)에는 군기 부정(軍器副正)으로 창덕궁(昌德宮) 증축공사의 낭관(郎官)이 되어 공사(工事)를 설계 감독하기도 하였다. 1464년에는 안동대도호부사가 되었고 1467년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선전관·훈연도원도정 등 군사의 요직을 맡았다.

예종 즉위 후에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맡았고 성종 1년(1470)에 동지중추부사 한성부좌윤에 올라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호조참판으로서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녹훈되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다가 다음해에 청양군(淸陽君)에 바꾸어 봉하여졌다. 공조참판으로 관직을 옮긴 후 1472년 병조판서에 승진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이듬해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도(章悼)이다. 부인인 전의이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위(偉)는 자원대부 청원군(淸原君)으로 부사 안우삼(安友參)의 딸과 혼인하였다.

묘는 경기도 광주군 연주면 서학당동(현재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되었으나 1494년 외조가



한치의 임칭(장도사)

인 성종(成宗)이 승하하고 이곳을 선택하여 선릉(宣陵)으로 삼게 되어 부득이 오늘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광수산(光水山) 기슭으로 옮겼다가 1506년 부인의 죽음과 함께 과천현 수리산 아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산 170-1번지에 이장, 합장되었다.

이곳은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도장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을 지나 좌측 산이며 묘소에는 정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 합장이고 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문인석(文人石)·동자석(童子石)·양석(羊石)이 설치되어 있다. 묘 앞에는 1508년 같은 해에 만든 비좌이수의 형태로 세운 한치의와 전의이씨 묘각이 각각 좌우측에 있고 묘소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1974년에 세운 것이다.

묘각은 중종 3년(1508)에 세워졌으며, 비신과 이수(螭首)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머리같은 한 마리의 이무기가 구름에 감싸여 좌측의 여의주를 올려다보며 있는데 후면도 통일하며 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紋)·동자주(童子柱)의 문양이 있다.

한치의 비문은 이자건(李自堅)이 짓고 해서(楷書)로 썼으며 높이 167cm, 폭 70cm, 두께 14cm이고, 전면(前面)과 후면의 글자의 지름은 2.4cm이다. 전의이씨의 비문은 신용개(申用溉)가 짓고 높이 159cm, 폭 55cm, 두께 14cm이다.

#### 24) 홍일동(洪逸童 : 1412~1464)

홍일동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일휴(日休), 호는 마천(癡川), 본관은 남양이다. 세종 24년(1442)에 한학훈도(漢學訓導)로 재직하던 중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돈녕부부승으로 승진하였다. 같은해 사헌부 강이관(講筵官)으로서 여러해에 걸친 한어 강습에 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탄핵으로 곤장 80대의 형을 받고 파직되었다. 세종말부터 문종 초에 우정언(右正言)을 지내고 1453년(단종 1)에 선공감판관 이듬해에 개천군사(介川郡事)를 역임하고 1454년에 사간원좌원납(司諫阮左獻納)이 되었다. 1455년(세조 1) 주부(主簿)로 재직하던 중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57년에 부지승 문원사(副知乘文院事)로서 사은사 압물관(押物官)이 되었는데 사행중에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였다. 이에 지평 김개(金瑒)는 홍일동이 사행중에 무단히 귀환하여 중시에 응시하였다. 응시한 뒤에는 이뤄지도 않고 귀임하였으며 급제한 뒤에는 명소(命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명나라에 갔다고 하여 탄핵을 받았으나 용서받았다.

1459년 관승문원사로 재직하던 중 칙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461년 호조참판으로 하성절(賀聖節) 및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1462년에 인순부윤(仁順府尹)으로 하정사가 되어 재차 명나라에 다녀왔다. 1463년에 행상호군(行上護軍)으로 명송지를 유람시키라는 세조의 명을 받아 선위사(宣慰使)의 직책을 띠고 유람하던 중 홍주(洪州)에서 과음하여 죽었다. 그의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동에 있었다. 성품이 호방하고 소탈하였으며 시와 풀피리에 능하여 명성이 있었다. 저서로는 『마천집(緘川集)』이 있다.

## 2. 근대의 인물

### 1) 안상호(安尙浩 : 1872~1927)

안상호(安尙浩)는 의사로 호는 해강(海岡)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1902년 6월에 일본 동경 자혜의학전문학교(東京慈惠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04년에 귀국하여 순종의 진의로 있으면서 지석영(池錫永)이 세운 의학교(醫學校) 교관이 되어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듬해 교관을 그만두고 서울의 종로 3가에 개인 진료소를 차려 진료활동을 벌였으며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담한의학교(東檀漢醫學校)에서 서양의학을 강의하였다. 1919년 1월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경무황제)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전의였던 안상호가 일본인 모리야스와 고종을 진료하였으나 끝내 승하였다. 이로 인해 고종의 진료에 참가했던 안상호 등은 일본인의 사주로 고종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혹을 입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이 고종의 죽음은 일본인에 의한 암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 지휘하에 있던 한국인 의사들의 행위를 의심할 수도 있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시비의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튼 한국 양의학계의 효시를 연 인물 중의 하나임을 틀림없다.

### 2) 이범익(李範益 : 1883~?)

이범익은 단양출신으로서 창제명은 충청의 청(淸)과 강원(原)자를 따서 청원원익(淸原範益)

- 
- 2) 한국인 의사들이 만든 최초의 학술단체인 의사연구회(醫事硏究會)가 1908년 11월 15일에 창립되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창립인을 11월 15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의사연구회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김익남, 부회장 안상호, 총무 유병필, 간사 최국현, 장기무로 임원진을 구성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의사연구회는 주로 관립의학교의 교관들과 졸업생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의사연구회에서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신 의학에 관한 지식을 교환하는 한편 잡지의 발간 문제도 협의하였으며 1909년 4월에는 임원진의 결의로 의사법의 반포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점된 1910년에 모든 단계가 강제로 해산됨에 따라 의사연구회 역시 해체되었다. 하지만 일제하에 들어 한국인 의사들이 다시 결집하였다. 그 결과 1915년에는 현재 서울시의사회의 전신인 한성의사회를 창립하였고, 1930년에는 조선의사협회를 발족하여 한국인 의사들의 조직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1898년 외국어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02년 12월에는 일어보통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이후 1903년 5월 28일 외국어학교 교관이 되었고, 1904년 2월 보광학교(普光學校) 교사, 1905년 9월 27일 일본 육군성 육군통역(陸軍通譯)이 되어 일본 육군의 봉역을 담당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1908년 2월에 공로금 80원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명치대학(明治大學) 법학과에 교외생(校外生)으로 입학하였다. 1906년 3월 29일 탁지부 통역관보가 되었고 5월 16일에는 보광학교 교사를 사임하였다. 그리고 10월 23일 돈명익숙(敦明義熟) 강사, 1907년 3월 5일 탁지부 건축소 기사, 6월 26일 농상공부 서기관, 8월 1일 경성박람회 고문, 9월 25일 경성박람회 심사관이 되었고 1908년 1월에 농상공부 비서관, 6월에 내부 서기관 겸 비서관이 되었다. 그가 농상공부 비서관으로 있을 때 농상공부대신이던 매국노 총병준의 비서관으로서 송병준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소위 '한일합방' 이후 구한국의 내부 서기관에서 총독부 관리로 변신하였는데 합방 직후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 위원이 되었으며 1912년에는 춘천군수가 되었고 1916년에는 예천군수가 되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인 1921년에는 장헌식(張憲植), 홍승표(洪承均), 이종국(李鍾國), 남궁영(南宮營)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사무관에 임명되었다. 1924년에 황해도 내무부장, 1927년 6월에 경상남도 참여관을 거쳐 1929년 강원도지사, 1935년 충남도지사가 되었고 1937년에는 중추원 참의, 만주국 국무원 촉탁, 만주국 간도성장에 임명되었고 1945년에는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이처럼 이병익은 구한말 이래 적극적인 친일 행적을 견지하였다. 특히 그는 1932년 강원도지사 시기에 일제의 농촌진흥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도근읍면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각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모아 거도일심으로 기사회생의 업을 이루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1942년에는 재만 한인들을 소위 생산력 증진의 노력정신대(勞力挺身隊)로 동원하기 위해 선계국민개로보국운동(鮮系國民培勞報國運動)을 전만주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결의를 협화회(協和會)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병익이 언제 군포로 이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군포시 당동, 즉 현재의 군포초등학교 후면의 북쪽(수리산 쪽)에 거주했다고 한다. 본래 그가 살던 집은 시흥군 남면(현재의 군포시) 면장 이던 조중원의 집으로서 그가 조중원에게서 구입했다고 하며 이 집은 한국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남면당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 3) 조중완(趙重完 : 1879~1942)

조중완의 본관은 양주로서 조선후기 노론의 명문가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는 아관파천시 친러파의 한 사람이었던 조병직(趙秉稷)으로서 1897년 만민공동회를 단합하여 개화와 인본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조중완은 『대한제국관헌이력서』에 따르면 1898년 6월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1월 졸업하여 무관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1900년 1월 19일 육군참위(陸軍參尉)로 임용되었다. 친위대, 시위대 등지에서 근무하고, 1905년에는 육군연성학교교관(陸軍研成學校教官)이 되었고 1906년에는 헌병대 구대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구한국의 무관인 참령으로 근무하던 중 한일합방을 맞아 거주지였던 서울의 계동에서 군포로 이거하였다.

군포에 이거한 이후 그는 1916년 시흥군 남면(현재의 군포시) 면장이 되었고 1921년과 1924년에 경기도평의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26년 무렵에는 사설 군포우체국장으로서 농촌진흥과 풍속개량을 목적으로 시흥군남면진흥회(始興郡南面振興會)를 조직하였다. 또한 1930년 12월부터 1939년 12월까지 시흥군 남면장을 다시 역임하였다. 이때 그는 농촌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촌개량소조합을 결성하였다. 특히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은 군포공립보통학교(현 군포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군포공립보통학교는 1920년 4월 1일 교실 7개와 11개의 학급에 903명의 학생으로 개교되었다. 이때 조중완은 관계당국과 교섭하여 자신이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1921년 경기도평의회원으로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잡지 『조선』 80호(1921. 10)에 「所期の目的を達するも遠きにあらざるべし」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3. 현대의 인물

### 1) 오형탁(吳亨鐸 : ?~1997)

오형탁은 군포시 당동동 345번지에서 태어나 시흥군청과 경기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는 군포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어려서부터 가학으로서 한학을 수학하여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고로 그는 과천향교의 전교 및 과천 유도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그가 주목받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가 못사람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면서 모은 재산 10억원을 후진 양성을 위해 기탁하여



군포초등학교

1996년에 성오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1997년부터 성오장학재단은 매년 약 5, 500만원 내지 6,500만원을 3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어렵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 지역사회의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노환으로 인하여 1997년 7월 21일에 별세하였다.

## 2) 윤영춘(尹迎春 : 1907~1981)

윤영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 복청사자놀이음 예능보유자. 1907년 9월에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북리 44번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1951년 1·4 후퇴 때 월남하여 지금의 군포시 당동에 정착하여 거주하였다.

어렸을 때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8세 때부터 북청군 북청읍 북리에서 사자탈을 쓰고 사자놀음 하는 법을 배워 최고의 실력자로 성장하였다. 1958년과 1961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사자춤으로 개인공로상을 받았으며 1965년에는 변영호와 함께 북청예술협회를

조직하였다. 1967년 3월에 중요 무형문화재 복창놀이 사자앞머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81년 6월 21일에는 사단법인 함경북도 복청사자놀이 예술보존회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 후계자로는 이철균(李哲均), 전철하(全澈河), 동선백(董善白) 등이 있다.

한편 윤영춘 이외에 복청사자놀이 기능보유자는 김수석(金壽石 : 사자 앞채역) · 변영호(邊永鎬 : 약사) · 동성영(董誠英 : 사자 앞채역) · 여재성(呂在性 : 사자뒤채역) · 전주식(全仲植 : 약사) · 전광석(田光石 : 칼춤) · 이근화선(李根花善 : 사당춤) 등이다.

### 3) 이무영(李無影 : 1908~1960)

이무영은 1908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본명은 감봉이다. 휘봉고보 2학년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25년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조 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작가 가도 다케오의 집에 기숙(寄宿)하며 4년 간 문학 수업을 하였다. 1926년 최초의 장편소설 『의지 없는 영혼』을 발표한다. 1927년 이무영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에 심취하는 한편 장편 『폐허』를 간행하고 ‘무영(無影)’이란 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 귀국한 1929년 이미 두 편의 장편을 썼으므로 작가가 된 줄 알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비관한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교사, 잡지사 및 신문사 기자 등을 전전하면서 계속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1년 『동아일보』의 한국 최초의 회곡현상모집에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이 당선되었고 1933년에 ‘구인회’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며, 1934년에는 동아일보사에 학예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1936년 일장기 발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정간되자 분예지 『조선문학』을 창간하였고 이듬해 첫 번째 창작집 『취향(醉香)』을 간행하였다. 1938년 두 번째 창작집 『무영 단편집』을 간행하였으며 1939년에는 두 편의 장편소설을 간행하는 등 귀국한 지 십 년 만에 이무영은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힌다.

그러나 이무영은 1939년 언제나 불만스러워하던 도시생활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문사 기자직을 그만두고 경기도 군포 근처의 농촌으로 내려가 꿈에 그리던 농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민소설들을 써내기 시작하여 ‘제1과 제1장’(1939), ‘흙의 노래’(1940), 장편소설 『농민』(1954)과 같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방부 정훈국장, 생명여대 강사, 단국대 교수를 역임하는 한편 펜클럽, 자유문학자협회, 문충 등 문인 단체의 간부로 일하던 중 1960년 4월 21일 갑작스런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이상은 김만수 외 3인, 『문학사전』)

이무영이 1939년에 발표한 대표작인 단편 『제1과 제1장』은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귀농(歸農)하는 주인공 김수택이 아버지 김영감의 인간미 넘치는 생활 철학(도둑이 들어 수탉이 도둑을 잡지만 아버지



이무영이 직접 짓고 산 집

는 도둑을 놓아주면서 대신 쌀 현판을 주어 보낸다. 오죽하면 도둑집을 하겠느냐는 것이대에 동조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 한편 당시 농민의 참혹한 가난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지식인이 일방적으로 농민을 계몽한다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이 힘든 노동을 통해 진정한 농민이 되어간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농민의 비참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훈의 『상록수』와 같은 계몽 운동 차원의 농민문학과 뚜렷이 구분된다.

물론 지식인인 아들이 무식하나 순수한 농사꾼 아버지의 삶에 동화되고 만다는 결선이 이후 이무영의 어느 작품에나 똑같은 도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주인공이 귀양하게 되는 동기가 모호하고 아버지의 수탈 받는 농민으로서의 자각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농민으로서의 삶을 직접 체험한 농민의 눈으로 농촌의 실상을 그려내고 있다는 데서 이 소설의 가치는 두드러진다.

한편 이무영의 딸과 함께 군포초등학교를 다닌 동창(이기형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무영 집은 사는 형편이 괜찮았다고 하며, 이무영의 딸(이자란)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 4) 이재준(李載濬 : 1917~1995)

이재준은 군포시 산본동 343번지에서 부 이규용, 모 양남옥의 사이에서 1917년 7월 30일에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유년시절에는 고향에서 군포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회에 진출하여 인천시 교육위원과 대림산업(주) 회장, 대림학원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과 건설업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와 같은 공으로 인하여 군포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포를 빛낸 인물로서 1997년 10월 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전 국회의장 이재형의 아우이다.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의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무송리에 있다.

#### 5) 이재형(李載瀅 : 1914~1992)

정치가. 호는 운경(雲耕)이다. 1938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하여 일본의 조선농민의 경제적 약탈기관이었던 금융조합 이사와 금융조합연합회 사업부장·고문 등을 지냈다.

1948년 제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자 경기도 시흥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제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시흥에서 당선되었고 1951년 국회 재경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2년과 1953년 사이에는 상공부장관을 지냈다. 당시 자유당의 다양한 계파 중에서도 이전의 이범석(李範奭)계와 연관이 있는 족청파(族靑派)로 지목받기도 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60년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60년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며 1967년에는 신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68년에는 신민당 부총재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 유진산(柳珍山)과 신민당 당권 경쟁을 벌여 패배하고 잠시 고문직을 맡고 있다가 1971년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겨룬 대통령선거기간 중 신민당을 탈당, 정계를 떠났다. 그가 다시 정계에 각광을 받고 등장하게 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시해된 이후 새로이 등장한 전두환 군부세력의 권유로 1980년 국정자문위원회에 취임한 이후의 일이었다.

1981년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81년에서 1983년까지 대표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상화에 노력하여 한일친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정부로부터 탄원수교에 대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1983년 이후 민정당 상임고문이 되었고 1985년 민정당 전당대회회장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등장 이후부터는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었으며 특히 3당 합당 이후에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

고향인 군포에 은거하였다.

저서에 『의정(議政) 6년』이 있다. 진국훈장 무궁화장과 타이 백상대훈장을 받았다.

#### 6) 한흥리(韓興履 : 1897~1979)<sup>3)</sup>



본관은 청주(淸州), 용익(用翼)의 아들로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다. 후손이며 32년 동안 군포시 이전의 산본리 이장을 역임한 한수교에 의하면 오늘날 수리신역 앞의 산본리 도장동에서 태어나 시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으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계동이 안양시 최남단에 위치한 동리로서 그 서쪽이 군포시 당정동 빈세전리 및 금정동 점밭이고 조선 말엽에 구군포사거리와 맑은내(淸川) 사이에 장(군포장)이 설치되었던 곳이므로 오늘날 군포와의 관련이 적지 않다.

한흥리는 10살(1906)까지는 조부로부터 천자문·

소학 등을 배웠고 13살(1909)부터는 호계동 소재 낙영학교(樂榮學校) 2학년에 편입했으나 이듬해 폐교되자 수원군 반월면 4리(현 안산시 4동) 소재 장화의숙(長萃義塾)에 편입하여 맹자·수학·일어 등을 수학하고 이어 1915년에 시흥공업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경기고교 전신) 입학한 후 독립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1919년 그가 2학년 때 일어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이어서 기차 통학생의 임무로 독립선언서를 분배받아 시흥·안양·군포역에서 한국의 자주독립의 당연성을 역설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는 왜경에게 욕망방망이로 정강이를 맞고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구금되었다.

그 후 서울 수창동에 소재한 경성보인학교(현 보인상고 전신)에 부임하였고 1927년 사학(私學)의 대표격으로 임원하사시찰단에 선발되어 일본을 시찰하였다. 1928년 서울의 매일신보사에 기자로 입사하기도 하였고, 1945년 광복이 되자 안양에 정착하였다. 그 해 11월 국가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에 따라 안양시 안양동 603에 안양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3)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淸州韓氏遺事寶鑑(하권)』, 淸州韓氏中央宗親會, 1998.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장문을 닫고 5리 밖에 있는 호계동 본가로 가있다가 그 해 12월에 부산으로 피난을 했다. 이듬해 일자리를 찾던 중 부산 시내에 소재한 국제신문사 기자로 취직했다. 1958년에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체를 육성해야 하며 한 산업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기술학교 설립을 신청, 인가를 받아 공장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소사공과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3년 후(1961)에는 소사고 등기술학교와 소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각각 증설되었다.

1978년에는 고등교육의 기초인 전문대학에 뜻을 두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해 12월에 부천공업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듬해(1979) 3월 부천공업전문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후 이해 5월 8일 83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1990년 8월15일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묘는 시흥시 매화동 산 26에 있다.